

## 공공도서관 불교서가 ‘셀링’ (書架)

대출 사례 저조 도서구입예산 부족 도서기증 미약 등 ‘복합 원인’

### 불출력 “내년부터 기증·납본 확대 모색”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김성우(40·부천시)씨. 김씨는 집 부근의 시립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그에 게 도서관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 거의 공부방 개념이다. 불교관련 글을 주로 쓰는 김씨의 경우 도서관에 갈 때 필요한 책을 집에서 가져가 읽는다. 가끔 자료실에 가보지만 참고할만한 불교책은 거의 없다. 처음 그곳을 방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장은 군데군데 텅 비어 있었고 그나마 꽂혀 있는 불교서적은 500여권에 불과했다. 책 종류도 전문서적보다는 일반출판사에서 펴낸 명상서와 읽기 쉬운 불교 산문집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에 가도 불교코너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공공도서관들이 연간 국내에서 발행되는 도서의 15~20%정도 밖에 새로운 도서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도서관에 가도 보고 싶은 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



서울 J도서관 불교서적코너. 서가엔 빈공간이 많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다.

공공도서관의 불서코너가 썰렁하다. 책이 많지 않으니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불서코너가 이용객에게 의미받는 이유가 뭘까? 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에 의하면 2005년 한해 발행된 서적은 총 4만 3595종, 500여 공공도서관의 1년 장서 구입비는 120여억원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한 곳당 한해 240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와같은 현상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용자들의 불평은 클 수밖에 없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출판사에서 무적으로 납본을 받는 국립중앙도서관이 4866권, 국회도서관이 2685권 등의 불서를 소장하고 있다. 서울 남산도서관 1147권, 서울 정독도서관 729권, 경기 시흥시립도서관 470권,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433권, 광주 중앙도서관 343권, 전북 익산시립도서관 252권, 대전 신탄진도서관 184권,

경북 고령도서관 49권, 경북 점촌도서관 44권 등이다. 소도시 도서관으로 갈수록 불서소장은 줄어들고 있다. 서울 N도서관의 한 사서는 “도서관 당 불교도서 비치는 ‘도서관법’에 의거 봉사대상 기준인구(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읍·면의 인구에 따라 정해져 있다)며 ‘장서구 성비율은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출당당자는 ‘종교서적을 구별해 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 내기는 어렵지만 불교서적의 대출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도 사정도 엇비슷했다. 도서관마다 희망도서 신청서를 비치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지만 불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불교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불서의 경우 기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교계 출판사는 책을 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 1권씩 겨우 2권을 보내는 정도다. 그러나 일반출판사의 경우 납본용 도서를 150권이나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를 기증한다고 해도 쉽게 받아주지도 않고 자칫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출판문화협의회 차원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불서’를 기증하거나 납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불교출판문화협의회 김시열 사무국장은 “내년부터는 협회 차원에서 불서구입비용을 협찬받아 공공도서관 등에 불서를 납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그나마 희망적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맞춰지지만 종교서적의 경우 불교 기독교 기타종교 등이 ‘종교’ 하나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 신간이주로 잘나가는 책을 구입한다”고 밝혔다.

또, 불자들의 책 안 읽는 풍토가 도서관의 불서비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불서를 대출하는 사례가 드물니 불서 비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도서관 측의 설명이다. 서울 J도서관의 대



조계종 균종특별교구는 11월 30일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서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 “건강한 몸·마음으로 군포교 매진을 ...”

### 군승의 날 기념법회 성료...정인악씨 후원회장에 위촉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하립각에서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더욱 건강하게 가르치는 군법사에게 성원을 보내고 격려를 해 주어 모든 사부대중들이 자타일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법회에서는 중앙신도회가 장병들의 수계증을 순금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약속하고 1차분 1천 300만원을 보냈다. 또 김연숙 불자가 공군사관학교 법당 교육관 건립불사 기금으로 1억원을 희사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오는 16일 마감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

- 주제 :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부타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41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우마상) · 우수상(분사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회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액(최고 10만) 열쇠를 드립니다.

## 몽골 소년 한국불자 품에서 ‘눈’ 뜨다...병불린 망막수술 ‘자비행’

몽골의 14세 소년이 11월 30일 서울 영등포 김안과에서 ‘망막 수술’을 받았다. 서울에 들어온 지 4 일만의 일이다. 한국 입국 이후 곧바로 정밀검사에 들어가 수술을 받기까지 소년의 옆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김안과 손경수(53) 박사.

손 박사는 의료봉사를 마친 날 열린 평가회에서 소년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털어냈고, 병원 불자연합회가 방법 모색에 나섰다. 그러자 몽골 고려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금강산원(주지 환안)이 소년의 항공료와 체제비 일체를, 김안과는 수술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소년이 눈을 뜨게 되기까지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병원불자연합회는 바트솜보르 주민들에게 ‘희망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따뜻한 마음’을 심어 주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년차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도반의 향기**

- 이청자 국립의료원 봉사자 17명
- 빛고을아카데미 지상중계 4명
- 성일 스님 ‘쌍림열반상’
- 진각종 스리랑카 포교 현장 8명
- 사찰출회 ‘특성화 여덟개?’ 10명
- 봉선사 김성대법회
- 월은 스님 ‘능엄경’ 24~25명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포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불촉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불촉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 공과 합니다.

#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LED인등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만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